

유아의 영재성과 또래유능성 및 자아지각과의 관계\*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Preschoolers' Self-Perception,  
Peer Competence, and Giftedness

위덕대학교 영재교육원  
연구원 손지향  
위덕대학교 유아교육학부  
조교수 이순복

Center for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Uiduk University  
Research Fellow : Ji Hyang Son  
Divis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Uiduk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Soon Bok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self-perception, peer competence and giftednes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01 preschoolers between the ages of 4 and 5 who attended childcare centers and private kindergartens in Pohang city area.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ability variables of self-perception and aggressive and asocial variables of peer competence. Secondly,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ability variables of self-perception and humor variables of giftedness. Furthermore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other acceptance variables of self-perception and logical thinking, task commitment and humor variables of giftedness. Finally,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hyper-distractible variables of peer competence and independence variables of giftedness.

주제어(Key Words) : 영재성(giftedness), 또래유능성(peer competence), 자아지각(self-perception)

Corresponding Author : Soon Bok Lee, Divis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Uiduk University, Gangdong, Gyeongju, 780-713, Korea Tel: +82-54-760-1598 Fax: +82-54-760-1689 E-mail: sblee@uu.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 일부임.

## 1. 서론

현대사회는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재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각 유아가 지닌 영재성을 초기에 발굴하여 그들의 특별한 재능인 영재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재교육분야에서 이론적으로 유아기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언급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한석실, 2005). 이와 반대로 실질적으로 유아의 영재성을 확인한 후에 체계적인 유아영재교육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유아의 영재성”에 대해 사회적, 학문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유아의 영재성을 판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어린 유아들의 영재성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영재를 정의함에 있어 현재 뛰어난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아동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아동도 영재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Marland, 1972). 따라서 유아에게 잠재되어 있는 영재성에 주목하고 성공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일찍부터 영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 온 외국의 경우에서 3~5세 유아기에 이미 영재성이 나타남을 관찰로 통해 보고되고 있으며(Dimiani, 1997; Hodge & Kemp, 2000), 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지도하지 않으면, 초등학교 취학 전에 이들이 지닌 자신의 재능을 숨기거나 왜곡해 버리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Gross, 1993).

현재 우리 사회는 만 3~5세 유아들의 잠재적 재능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검사도구가 부족하여 영재성을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우며(전경원, 2000) 검사도구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유아의 행동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Renzulli & Smith, 1971), 게다가 개인검사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유아의 능력과 상태를 파악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유아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성장을 함께하고 관찰해온 부모에게서 유아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조석희와 한순미(1986)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관찰에 의한 선별은 76%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Alvino(1985)는 부모들이 자녀의 영재성을 판별해내는 민감적인 감각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기의 영재성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관찰은 비록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영재유아 선별의 초기단계에서는 매우 중요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생애 초기부터의 발달을 관찰해온 유아의 부모를 통해 유아의 영재성을 평정하고자 한다.

지난 세기동안, 영재의 본질에 대하여 많은 사실들이 왜곡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영재아의 특성에 대하여 영재아가 모든 분야에 다재다능하지만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문제, 교사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등의 오해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Parke, 1989). 그러나 실제로 개인에 따른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영재아들은 보통 사회적으로도 매력이 있고 도덕적 책임성이 있으며 대인관계역시 원만하다는 것이 그간 이루어진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들이다(이주현, 김정원, 1997). 반대로 영재 집단의 대다수가 단순한 학교 교육에 대한 지루함과 욕구 불만으로 부적응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Marland, 1972). 이처럼 영재성의 발달은 높은 지능이나 학생의 탁월한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성격적 특성이 한 개인의 성공에 지능보다 더 중요하다(Winner, 1996). 따라서 인격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유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일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유아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본인의 능력을 발현하게 되는데, 이는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창조하거나 통제할 기회를 가지며, 이를 통해 상호작용 기술을 습득하기 때문이다(우수정, 2001). 유아는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역할, 사고, 행동 등을 보다 자유롭게 시도해 볼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을 새로이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더 나아가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소속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인간관계나 혹은 심리적인 적응 등의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유아기 시절에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한 유아들은 후에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과 심리적인 불안을 겪으며 심지어는 학업 성적 부진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되었다(안선희, 1998). 특히, 많은 아동들이 또래관계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박주희, 2001).

이렇듯 유아의 사회적 관계가 유아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회적 욕구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충족되기 때문이다(우수정, 2001).

그러므로 유아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 겪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유아의 자아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의 영재교육이라는 이름 하의 활동을 보면 지적능력에는 큰 관심을 두었으나 정의적 영역은 거의 도외시하였다. 인간

발달의 형성은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모습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활동은 자아개념의 형성, 가치명료화, 역할 작용, 가치방향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특성들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송인섭, 2000).

Bowlby(1973)와 Piaget(1955)에 의하면 개인의 자아에 대한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자신이 접하는 환경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Harter(1990)는 아동의 자기 평가가 정서와 동기에 영향을 줌으로써 적응적 지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영재들의 도덕성은 또래에 비해 선악, 정오의 판단 등 도덕적 윤리적 가치에 대해 관심이 높고 책임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Feldhusen, 1992) 다른 한편으로는 영재의 비도덕성을 지적하면서 영재들은 '건전한 속임수'에 능하며 이러한 속임수는 영재들의 높은 정신력과 도덕적 사고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비행과 범죄로도 발전할 수 있으므로 정서적 측면에서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Hollingworth, 1942).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여 볼 때, 바람직한 행동을 하느냐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자아개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조윤정, 2002).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자아를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느냐 아니면 그 반대이나 하는 문제는 특히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 매우 중요하다(송인섭, 2000).

Hampson(1979)은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아동들이 낮은 자아개념을 가진 아동보다 돕기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 Reykowski와 Jarymowicz(1976)는 자아개념이 낮은 아동은 타인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집중되며 친사회적 행동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김윤하, 2006). 이는 거부아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아개념이 낮고 자신이 또래에게 잘 수용되고 인기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Boulton과 Smith(1994)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동은 점차 자아를 인지 하게 되면서 보다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해 나가며 아동 자신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특히,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유아들에게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고유한 학습경험들을 제공해 주며 또래와 최초로 형성한 우정은 유아의 정서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Berk, 1999).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개념, 가족관계, 사회적 학습의 경험을 지적하고 있으며, 사회성 발달의 기본적 내용으로 자아개념의 형성, 운동기능의 습득, 언어의 유창성, 기본 충동 통제력

을 들고 있다(이연섭, 1984; 정우현, 1981).

우수정(2001)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인지능력에 대한 자아지각과 또래유능성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자아개념은 긍정적 인간관계 및 건전한 인간관계의 바탕이므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기술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김윤하, 2006). 이와 같이 유아의 자아지각과 또래유능성은 유아의 자아지각과 또래유능성과의 관계가 서로 유기적인 상호관계에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영재아동의 사회성숙도와 또래지위에 관한연구(최혜승, 2004), 영재유아와 일반유아간의 놀이성과 사회성숙도에 대한 차이연구(최수연, 2003), 영재아의 학교적응과 사회성숙도에 관한 연구(이주현, 김정원, 1997), 영재의 가정환경, 자아개념, 학업성적의 관계(윤경희, 2003) 등 영재유아의 사회적 측면과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유아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영재성과 정의적 측면에서의 자아지각 및 또래유능성에 대한 관계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의적 측면에서 유아의 자아지각 및 또래유능성을 유아가 가진 잠재적 능력인 영재성과 관련지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유아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그들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하고 교육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위해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유아의 영재성과 또래유능성은 관계가 있는가?
- 둘째, 유아의 영재성과 자아지각은 관계가 있는가?
- 셋째,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자아지각은 관계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포항시에 위치한 D사립유치원과 및 L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4, 5세의 유아 101명과 그들의 어머니 101명, 그리고 해당유아의 담임교사 7명이었다. 만 5세와 만 4세 반의 유아 중 남녀비율을 고려하여 D유치원의 유아 88명과 L어린이집의 유아 60명을 선정하였고 먼저 아동 개개인에게 자아지각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래유능성에 대한 조사는 대상유아의 담임교사에게 의뢰하여 교사평정으로 실시하였다. 동시에 대상아동의 어머니에게는 유아의 영재성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그리하여 수집된 자료 중, 무응답 및 응답이 불성실하게 기재되었다고 생각되는 47부의 자료를 뺀 101부의 자료를 본 연구에 사용

〈표 1〉 연구 대상 유아의 연령, 성별 분포 빈도(%)

| 구분 | 남(%)     | 여 (%)    | 전 체(%)   |
|----|----------|----------|----------|
| 4세 | 17(16.8) | 20(19.8) | 37(36.6) |
| 5세 | 36(35.6) | 28(27.7) | 64(63.4) |
| 전체 | 53(52.5) | 48(47.5) | 101(100) |

하였다. 본 연구의 자아지각 척도 응답자인 유아의 연령 및 성별분포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 영재성 척도는 연구대상 유아의 어머니에 의해 평정되었고 〈표 2〉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연구대상 유아의 어머니의 연령은 36 ~ 40세가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은 전문대졸이 65.3%로 주를 이루었다. 소득수준은 201 ~ 300만원의 수준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은 전업주부가 6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 아동의 형제순위는 첫째가 38.6%, 외동이 34.7%로 주로 두 자녀의 말이 이거나 외동의 유아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영재성 평정척도

본 연구에서는 장영숙(2007)이 개발한 부모용 유아 영재성 평정척도를 참고하여 유아의 영재성을 판별하는 체크리스트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총 문항 40개로 이루어진 이 질문지는 부모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유아의 행동특성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이어지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첫 번째 요인은 어휘 및 표현력이 포함된 '언어능력', 두 번째 요인은 '논리적 사고', 세 번째 요인은 과제에 대한 몰입과 집중력에 관련된 '과제집착력', 네 번째 요인은 독립적인 행동특성과 관련

된 '독립심', 다섯 번째 요인은 새롭게 독창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에 관련된 '독창성', 여섯 번째 요인은 재미있는 말이나 행동과 관련된 '유머', 마지막 요인은 유아의 도전적인 모험심에 관련된 '모험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영재성이 많은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영재성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번호와 신뢰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유아의 영재성 검사 하위 요인별 문항 번호와 신뢰도

| 하위범주   | 문항번호                           | 문항수 | 신뢰도  |
|--------|--------------------------------|-----|------|
| 언어 능력  | 1, 2, 3, 4, 5, 6, 7            | 7   | .807 |
| 논리적 사고 | 8, 9, 10, 11, 12, 13           | 6   | .790 |
| 과제집착력  | 14, 15, 16, 17, 18, 20         | 6   | .798 |
| 독립심    | 19, 20, 21, 22, 23, 24, 25, 28 | 8   | .833 |
| 독창성    | 26, 27, 29, 30, 31, 32, 33     | 7   | .772 |
| 유머     | 34, 35, 36, 37                 | 4   | .802 |
| 모험심    | 38, 39, 40                     | 3   | .742 |

2) 유아의 또래유능성

아동의 또래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송정(1999)이 번안 수정한 Ladd와 Proffitt(1996)의 유아 행동 척도(Child Behavior Scale: CB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CBS)는 총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35문항의 교사용 질문지로 유아가 또래 관계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기술의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할 수 있도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CBS 질문지는 모두 6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범주는 공격성에 관련된 7문항, 친사회성 7문항, 비사교성 6문항, 배척성 7문항, 불안정성 4문항, 과민성 4문항이다. 각 하위범주에 따른 Cronbach's α는 공격성 .882, 친사회성 .850, 비사교성 .850, 배척성요인

〈표 2〉 연구대상 유아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 변 인   | 구 분         | 빈도    | (%)  | 변 인   | 구 분     | 빈도 | (%)  |
|-------|-------------|-------|------|-------|---------|----|------|
| 연령    | 35세 미만      | 10    | 9.9  | 학력    | 고졸이하    | 18 | 17.8 |
|       | 36-40세      | 48    | 47.5 |       | 전문대졸    | 66 | 65.3 |
|       | 41-45세      | 35    | 34.7 |       | 대학교졸    | 16 | 15.8 |
|       | 45세 이상      | 7     | 6.9  |       | 대학원졸    | 1  | 0.9  |
| 소득 수준 | 101 ~ 200만원 | 17    | 16.8 | 직업    | 전업주부    | 63 | 62.3 |
|       | 201 ~ 300만원 | 47    | 46.5 |       | 생산·노무직  | 5  | 4.9  |
|       | 301 ~ 400만원 | 25    | 24.7 |       | 판매·서비스직 | 7  | 6.9  |
|       | 401 ~ 500만원 | 8     | 7.9  |       | 사무직     | 15 | 14.8 |
|       | 500만원 초과    | 4     | 3.9  |       | 관리직     | 8  | 7.9  |
| 자녀 수  | 1명          | 35    | 34.7 | 형제 순위 | 외동      | 35 | 34.7 |
|       | 2명          | 55    | 54.5 |       | 첫째      | 39 | 38.6 |
|       | 3명          | 10    | 9.9  |       | 둘째      | 22 | 21.7 |
|       | 4명이상        | 1     | 0.9  |       | 셋째이상    | 5  | 4.9  |
| 전 체   | 101         | 100.0 | 전 체  | 101   | 100.0   |    |      |

.918, 불안정성요인 .781, 과민성요인 .882이었다. 공격성과 비사교성, 배척성, 불안정성, 과민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이고 비사교적이며 배척성, 불안정성, 과민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친사회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번호와 신뢰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아동의 또래유능성 하위 요인별 문항 번호와 신뢰도

| 하위범주 | 문항번호                       | 문항수 | 신뢰도  |
|------|----------------------------|-----|------|
| 공격성  | 3, 9, 12, 22, 23, 24, 29   | 7   | .882 |
| 친사회성 | 14, 16, 21, 25, 28, 31, 34 | 7   | .850 |
| 비사교성 | 13, 18, 19, 30, 33, 35     | 6   | .850 |
| 배척성  | 4, 15, 17, 20, 26, 27, 32  | 7   | .918 |
| 불안정성 | 5, 6, 8, 11                | 4   | .781 |
| 과민성  | 1, 2, 7, 10                | 4   | .882 |

3) 유아의 자아지각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아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Harter와 Pike(1984)의 지각된 능력과 사회적 수용 그림척도(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를 이은해, 최혜영과 김미혜(1990)가 수정 보완한 유아용 자아지각 척도를 사용하여 각 유아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심리적 특성과 성격적 요인을 고려하여 유아가 편안한 상태에서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각 유아의 담임교사가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그림도구로서 그림의 주인공은 검사 대상 유아와 같은 성별이며, 유아의 지각에 기초를 둔 자기 보고식 척도이다. 하위영역은 유아의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또래수용 정도, 어머니 수용 정도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각 영역별로 4점 척도로 구성된 6문항씩 총 24개 문항으로 유아에게 그림을 제시하며 해당 문항에 대한 질문이 끝날 때마다 검사자는 유아의 응답에 따라 해당 문항에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요인별 Cronbach's  $\alpha$  는 인지적 능력이 .682이며, 또래 수용은 .640이며, 신체능력은 .692이며, 어머니수용은 .730이다. 유아의 자아지각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자아지각 척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 하위범주   | 문항번호                 | 문항수 | 신뢰도  |
|--------|----------------------|-----|------|
| 인지적 능력 | 1, 5, 9, 13, 17, 21  | 6   | .682 |
| 또래 수용  | 2, 6, 10, 14, 18, 22 | 6   | .640 |
| 신체능력   | 3, 7, 11, 15, 19, 23 | 6   | .692 |
| 어머니 수용 | 4, 8, 12, 16, 20, 24 | 6   | .730 |

3. 연구절차

1) 예비 조사

측정에 사용되는 도구의 적합성과 소요시간을 알아보고자 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만 4,5세의 유아 각 10명씩을 대상으로 2007년 12월17일 ~ 12월21일까지 자아지각 척도를 실시하였다. 자아지각 측정에 앞서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자아지각 측정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고 담임교사가 충분히 숙지하였다고 판단된 후 원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면접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자아지각 척도는 대상 아동들이 응답하기에 적절한 수준이라 판단되어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아동 1명에게 소요되는 검사시간은 약 5분 ~ 7분 정도였다.

2) 본 조사

자아지각 척도는 2008년 1월 14일 ~ 1월 31일 사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면접에 앞서 담임교사들에게 자아지각 척도를 실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고 주의사항에 대한 지침을 숙지시켰으며, 몇 차례에 걸친 사전 훈련 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조를 얻어 아동이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교실내의 별도 공간에서 개별면접으로 실시되었다.

또래유능성 척도는 2008년 1월 8일에 학급의 주교사에게 질문지를 배부한 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2주 후에 회수하였다.

영재성 척도는 2008년 1월 14일에 대상아동의 학부모에게 설문지조사에 관한 가정통신과 함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10일 후 수거하였다. 질문지가 회수되지 않은 가정에는 2008년 2월 11일 담임교사에 의해 작성된 안내문을 첨부하여 2차 배부하였고, 2월 15일에 회수하였다.

4. 자료분석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 11.5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연구도구의 하위변인에 따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의 영재성과 또래유능성의 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유아의 영재성과 또래유능성 간의 관

〈표 6〉 유아의 영재성, 또래유능성, 자아지각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101)

|        | 하위요인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영재성    | 언어능력  | 2.14 | 4.86 | 3.45 | .51  |
|        | 논리적사고 | 2.17 | 4.83 | 3.43 | .59  |
|        | 과제집착  | 1.83 | 5.00 | 3.42 | .61  |
|        | 독립심   | 1.38 | 4.38 | 3.15 | .56  |
|        | 독창성   | 1.86 | 4.29 | 3.17 | .48  |
|        | 유머    | 1.50 | 5.00 | 3.25 | .68  |
| 또래 유능성 | 모험심   | 1.33 | 5.00 | 3.37 | .69  |
|        | 공격성   | 1.00 | 4.29 | 2.05 | .74  |
|        | 친사회성  | 2.00 | 4.86 | 3.02 | .65  |
|        | 비사교성  | 1.00 | 3.67 | 1.80 | .66  |
|        | 배척성   | 1.00 | 4.86 | 1.92 | .77  |
|        | 불안정성  | 1.00 | 4.25 | 2.26 | .81  |
| 자아 지각  | 과민성   | 1.00 | 5.00 | 2.72 | .96  |
|        | 인지능력  | 2.33 | 4.00 | 3.38 | .50  |
|        | 또래수용  | 2.17 | 4.00 | 3.25 | .49  |
|        | 신체능력  | 2.00 | 4.00 | 3.20 | .57  |
|        | 엄마수용  | 1.50 | 4.00 | 3.10 | .60  |

계를 알아보기 전 유아의 영재성과 또래유능성, 자아지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에서와 같이 영재성 척도에 대한 하위요인별 평균은 언어능력 3.45( $SD = .51$ ), 논리적 사고 3.34( $SD = .59$ ), 과제집착 3.42( $SD = .61$ ), 독립심 3.15( $SD = .56$ ), 독창성 3.17( $SD = .48$ ), 유머 3.25( $SD = .68$ ), 모험심 3.37 ( $SD = .69$ )로 나타났다. 영재성의 평정도구는 문항별 최소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척도로, 영재성에 대한 평균이 3점 이상으로 나타나 대상유아의 부모가 유아의 영재성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또래유능

성의 점수는 공격성 2.05( $SD = .74$ ), 친사회성 3.02( $SD = .65$ ), 비사교성 1.80( $SD = .66$ ), 배척성 1.92( $SD = .77$ ), 불안정성 2.26( $SD = .81$ ), 과민성 2.72( $SD = .96$ )이며, 유아의 자아지각의 점수는 인지능력 3.38( $SD = .50$ ), 또래수용 3.25( $SD = .49$ ), 신체능력 3.20( $SD = .57$ ), 엄마수용 3.10( $SD = .60$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유아의 영재성과 또래유능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과 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영재성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p < .05$ 에서 또래유능성의 하위요인 중 과민성과 영재성의 하위요인 중 독립심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영재성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래유능성과 영재성과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또래유능성의 하위요인인 과민성과 영재성의 하위요인인 독립심( $r = -.209, p < .05$ )이며, 서로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민한 유아일수록 독립심이 낮은 것으로, 과민하지 않은 유아일수록 독립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유아의 영재성과 자아지각과의 관계

유아의 영재성과 자아지각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과 같이 유아의 영재성과 자아지각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p < .05$ 에서 영재성과 자아지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자아지각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능력과 영재

〈표 7〉 영재성과 또래유능성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 변인   | 언어능력  | 논리적 사고 | 과제 집착력 | 독립심    | 독창성   | 유머    | 모험심   | 총점    |
|------|-------|--------|--------|--------|-------|-------|-------|-------|
| 공격성  | -.032 | .084   | .012   | -.081  | -.013 | -.052 | -.028 | -.022 |
| 친사회성 | .023  | .051   | .156   | .109   | -.038 | -.078 | .109  | .067  |
| 비사교성 | -.040 | -.019  | -.095  | -.100  | .116  | -.072 | -.064 | -.061 |
| 배척성  | -.051 | -.041  | -.113  | -.157  | .073  | -.049 | -.060 | -.082 |
| 불안정성 | -.056 | .017   | .081   | -.012  | .083  | .067  | .033  | .044  |
| 과민성  | -.058 | .023   | -.074  | -.209* | -.086 | .068  | -.189 | -.102 |
| 총점   | -.065 | .032   | -.017  | -.144  | .031  | -.021 | -.072 | -.052 |

\* $p < .05$ .

〈표 8〉 영재성과 자아지각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 변인    | 언어능력  | 논리적 사고 | 과제 집착력 | 독립심   | 독창성   | 유머    | 모험심  | 총점    |
|-------|-------|--------|--------|-------|-------|-------|------|-------|
| 인지적능력 | .094  | .164   | .152   | .059  | .066  | .204* | .098 | .170  |
| 또래수용  | -.087 | .107   | -.002  | -.013 | -.053 | .104  | .041 | .028  |
| 신체적능력 | -.074 | .022   | -.056  | -.098 | -.088 | .131  | .001 | -.022 |
| 어머니수용 | .186  | .230*  | .206*  | .027  | .069  | .236* | .147 | .223* |
| 총점    | .042  | .162   | .095   | -.009 | -.001 | .209* | .090 | .125  |

\* $p < .05$ .

〈표 9〉 또래유능성과 자아지각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 변인    | 공격성     | 친사회성  | 비사교성   | 배척성   | 불안정성  | 과민성   | 총점     |
|-------|---------|-------|--------|-------|-------|-------|--------|
| 인지적능력 | -.255** | .141  | -.207* | -.183 | -.079 | -.092 | -.197* |
| 또래수용  | -.133   | -.020 | -.142  | -.161 | -.051 | -.012 | -.103  |
| 신체능력  | -.042   | -.046 | -.095  | -.052 | .083  | .142  | .014   |
| 어머니수용 | -.146   | .156  | -.170  | -.159 | .024  | .111  | -.044  |
| 총점    | -.173   | .073  | -.187  | -.168 | .027  | .060  | -.095  |

\* $p < .05$ , \*\* $p < .01$ .

성의 하위요인 중 유머( $r = .204, p < .05$ )이며, 또한 유머요인과 자아지각의 총점( $r = .209, p < .05$ )과의 관계에서도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특히 자아지각의 하위요인 중 어머니수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영재성의 하위요인 중에서 자아지각의 하위요인 어머니 수용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 것은 논리적 사고( $r = .230, p < .05$ ), 과제집착력( $r = .206, p < .05$ ), 유머( $r = .236, p < .05$ ), 총점( $r = .233, p < .05$ )이며 서로 정적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이 긍정적일수록 유머가 뛰어나며, 어머니수용에 대한 자아지각이 긍정적일수록 논리적 사고능력과 과제집착력 및 유머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자아지각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자아지각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와 같이 유아의 자아지각과 또래유능성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p < .05$ 에서 자아지각의 인지적 능력요인과 또래유능성의 공격성요인, 자아지각의 인지적 능력 요인과 또래유능성의 비사교성의 요인, 자아지각의 인지적 능력 요인과 또래유능성의 총점을 제외하고 다른 하위요인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자아지각 하위요인 중 인지적 능력을 제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지각의 인지적 능력요인과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공격성( $r = -.255, p < .01$ ), 비사교성( $r = -.207, p < .05$ ), 총점( $r = -.197, p < .05$ )으로 서로 부적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적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사교성도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IV. 논의

본 연구는 만 4, 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자아지각과 또래유능성 및 영재성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목

적을 지녔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성과 또래유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또래유능성의 하위요인 중 과민성의 요인과 영재성의 하위요인 중 독립심의 요인만 서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으며, 다른 요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는 영재성과 또래유능성이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아의 영재성과 또래유능성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능력을 습득하게 되므로 또래유능성을 유아의 사회적 능력으로 비추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영재아동들은 나름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을 가지며(윤여홍, 2000), 영재유아의 사회성숙도는 일반유아와 유의한 차이가 있고(최수연, 2003) 또한 유아영재는 호기심이 많고 자기주장이 뚜렷하고 독립적이며 주도적인 것과 같은 정의적 특성과 아울러 나이에 비해 성숙된 인지능력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왔다(Smutny, 1998). 특히 이주현과 김정원(1997)은 영재아의 학교적응과 사회성숙도에 관한 연구에서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받는 영재의 사회 성숙 수준이 더 높다고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은 지능검사 등을 통해 지적영재로 판별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영재성 판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기 교육이나 초기 개입(intervention)이 어린 유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과,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아동이 속한 물리적, 심리적 환경이 영재성의 발현과 계발에 영향을 주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윤여홍, 2002).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재의 개념은 영재다, 아니다의 개념으로 보기 보다는 잠재적 영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조용태, 2001). 그러므로 유아에게 잠재되어 있는 영재성에 주목하고, 그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아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둘째, 영재성과 자아지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자아지각과 영재성의 하위요인 중 유머와 총점과의 관계는 유의하였고, 영재성의 나머지 하위요인 언어능

력, 논리적 사고, 과제집착력, 독립심, 독창성, 모험심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자아지각과 자아지각의 총점이 영재성의 하위요인 중 유머와 관련이 있다고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유머를 이해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인지적 능력을 가정하며 유머는 인지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밝힌 McGhee(1971)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유머는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밝힌 Berlyne(1969)의 연구와 다소 일치한다. 이는 유머활동을 경험한 유아가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자아개념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류현수(2008)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따라서 유머활동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유아의 영재성을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자아를 기르는데 효과적인 활동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어머니수용에 대한 자아지각과 영재성의 총점 및 영재성의 하위요인 중 논리적 사고와 과제집착력 및 유머는 서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었으며, 언어능력과 독립심, 모험심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수용이나 신체적 능력의 자아지각은 영재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숙(2003)은 영재는 높은 수준의 자신감과 모험심, 독립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Terman(1925)은 영재는 정의적으로 우수하고 더 독립적이라 밝힌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것은 선행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이 영재성 판별을 거친 유아들이나 본 연구에서는 영재성의 판별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유아에게서 나타나는 영재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유아의 모험심이나 독립심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유아의 창의적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과 부모 관련 변인의 관계(김영옥, 홍지명, 김세루, 김권일, 2008; 서혜린, 이영, 2008; 장영숙, 2008)를 살펴보았으며 유아의 영재성과 자아지각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유아의 영재성과 자아지각과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 수용에 대한 자아지각이 영재성의 하위요인과 주로 유의한 관계에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부모 양육행동 중 적극적 참여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난 송수지(1999)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지지는 아동의 높은 자아 존중감, 지적발달, 원만한 또래와의 관계와 상관이 있다고 밝힌 김현정(1997)의 연구와도 다소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자아지각과 영재성의 하위요인간의 관계가 주로 자아지각의 요인 중 어머니 수용의 하위요인과 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동의 자신에 대한 지각은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부모의 평가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고 밝힌 Phillips(1987)의 연구와 다소 일치한다. 또한 부모가 아동에게 자기신뢰 또는 자아확신의 모델이 됨으로써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며, 부모의 관심과 수용의 정도가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힌 Coopersmith(1967)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핵가족화 된 요즘사회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부모의 지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또한 영재성의 총점과 자아지각의 어머니수용요인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것은 자아지각의 하위요인 중 어머니 수용의 면접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출생 시부터 자녀의 발달적 요구에 적합하게 대처한 부모의 바람직한 태도는 자녀의 영재성 발현에 조력하는 요인(이재연, 진선미, 1999)이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셋째,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자아지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자아지각과 또래유능성에서의 공격성과 비사교성요인 및 총점은 관계가 있었으며,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자아지각 중 또래관계에서의 친사회성, 배척성, 불안정성, 과민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또래수용에 관한 자아지각과 신체적 능력에 관한 자아지각, 그리고 어머니수용에 대한 자아지각은 또래유능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자아지각과 또래유능성의 공격성 요인 및 비사교성 요인 및 총점이 부적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인기 있는 아동은 인지적 능력이 높았으며 지능이 높은 아동이 인기 있는 아동이 되기 쉽고, 학교성적이 좋고 학문적 자아개념이 높은 아동이 인기가 있었다는 연구결과(Harter, 1983)와 다소 일치하며, 인지적 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사교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힌 연구결과(우수정, 2001)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4 ~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오정운(1980)의 연구결과 우수한 학업성적이 인기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인지적 능력을 다른 발달영역에 비해 높이 평가하고 인지적 결과를 중요시하는 경향 때문이며, 이것이 또래관계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는 신체능력에 대한 자아지각, 또래수용에 관한 자아지각과 어머니수용에 대한 자아지각은 또래유능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9 ~ 11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Boivin과 Bégin(1989)의 연구에서 또래지위와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자아지각 및 타인 지각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기 있는 아동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지각을 나타냈으며 인기아동

과 평범한 아동과의 운동능력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는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초등학교 3 ~ 6학년 아동의 또래 지위와 자아지각의 관계를 밝힌 김경집(1996)의 연구에서 아동의 또래지위를 결정하는 주요인이 인지적 능력과 함께 신체적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도 일치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다른 연구들의 연구대상 연령이 모두 아동기 중기를 다루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연령이 동일하지 않으며, 외국 연구 결과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신체적 능력이 인기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사회 문화적 차이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유능성을 교사가 평정하였으므로 아동의 신체능력이 아동의 또래관계에서의 인기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는지라도 교사들이 아동의 신체능력을 인지능력에 대한 평가보다 낮게 평정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또래유능성 평가가 교사가 아닌 아동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신체능력에 대한 자아지각과 또래유능성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유아의 신체적 자아는 또래의 인기도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인기아가 비 인기아에 비해 신체적 자아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선경과 성정숙(1998)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으며 또래집단의 사회적 지지 및 친밀과 아동의 사회적 자아 존중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 한중혜(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또래의 인기도에 따라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자아지각이 아동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주관적인 판단에 기인하므로 실제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역량과 아동이 지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나 능력에 대해 정확하게 지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영재성을 평정하기 위하여 장영숙(2007)이 개발한 부모용 유아 영재성 평정척도를 참고하여 유아의 영재성을 판별하는 체크리스트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는데 유아의 영재성을 평정하는 대상이 부모이므로 부모의 주관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지속적 관찰 또는 다면적 판별을 통해 선발된 영재를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참고문헌

김경집(1996). 아동의 역량지각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영옥, 홍지명, 김세루, 김권일(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열린 유아교육연구**, 13(1), 205-228.

김윤하(2006). 유아의 또래 인기도에 따른 자아개념 및 사회적 기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현정(1997).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시험불안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류현수(2008). 유아활동경험이 정서지능 수준에 따라 유아의 자아개념 및 유아미해도와 감지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8(1), 119-142.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 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혜린, 이 영(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정서 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33-56.

송수지(1999). 영재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인섭(2000). 정보화 시대의 영재교육. **사회교육과학연구**, 4(1), 3-33.

송 정(1999). 자녀의 또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인지, 개입 행동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현숙(2003). 영재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완벽주의 성향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안선희(1998). 어머니의 신념, 어렸을 시 또래관계 및 사회화 전략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5(2), 48-63.

오정운(1980). 아동들의 인기요인으로서의 학업성적과 운동 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19(1), 41-49.

우수정(2001). 유치원 아동의 자아지각과 또래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경희(2003). 영재의 가정환경, 자아개념, 학업성적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2), 331-353.

윤여홍(2000). 영재의 심리적 특성과 정서발달을 위한 상담. **한국심리학회: 일반**, 19(1), 79-101.

윤여홍(2002). 유아 영재의 판별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교육. 한국영재학회 2002년 한국영재학회 춘계학술세미나 및 워크샵: 21세기 창의적 생산자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105-133.

이선경, 성정숙(1998). 유아의 또래간 인기도와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연구**, 14, 131-147.

- 이연섭(1984). **유아교육과정**. 서울: 창지사.
- 이은혜, 최혜영, 김미해(1990). 아동의 사회적 능률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유치원용 및 초등학교 1, 2학년용 척도. **생활과학논집**, 4, 175-189.
- 이재연, 진선미(1999). 영재유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아동연구**, 13, 53-69.
- 이주현, 김정원(1997). 영재아의 학교적응과 사회성숙도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1(3), 271-294.
- 장영숙(2007). 부모용 유아 영재성 평정척도 개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2), 79-102.
- 장영숙(2008).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창의적 인성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2), 135-159.
- 전경원(2000). **영재교육학**. 서울: 학문사.
- 정우현(1981). 사회화 연구의 동향. 교육연구 개요지(한국교육개발원 교육사회화편).
- 조석희, 한순미(1986). **취학전 영재의 특성 및 부모의 지도실태와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용태(2001). **유아 영재진단 평가체계. 미래유아교육학회 추계 학술 대회 논문집: 유아영재교육의 과제와 방향**, 69-107.
- 조윤정(2002). 영재와 일반학생간의 자아개념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수연(2003). 영재유아와 일반유아간의 놀이성과 사회성숙도에 관한 차이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혜승(2004). 영재아동의 사회성숙도와 또래지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석실(2005). 발달에 적합한 유아교육.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1), 25-56.
- 한중혜(1997). 교사 및 또래집단과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3(1), 151-180.
- Alvino, G.(1985). *Parent's guide to raising a gifted child: Recognizing and developing your child's potential*.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Berk, L. B.(1999). *Infant and children*. Boston: Allyn and Bacon.
- Berlyne, D. E.(1969). Laughter, humor, and play. In G. Lindzey & E. Aronson(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 795-852. Reading, MA: Addison-Wesley.
- Boivin, M., & Bégin. G.(1989). Peer status and self-perception among early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case of the rejec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0, 591-596.
- Boulton, M. J., & Smith. P. K.(1994). Bully/victim problems in middle-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perceived competence, peer perceptions, and peer a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15-129.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Dimiani, V. B.(1997). Young gifted children in research and practice: The need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Gifted Child Today*, 20(3), 18-23.
- Feldhusen, J. F.(1992). Talent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Gifted Child Quarterly*, 36, 123.
- Gross, M. U.(1993). *Exceptionally gifted children*. London: Routledge.
- Hampson, R.(1979). *Peers, pathology and helping: Some kids are more helpful than other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an Francisco, USA.
-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275-385. New York: Wiley
- Harter, S.(1990). Issues in assessment of self-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La Greca (Ed.) *Childhood assessment: Through the eyes of a child*, 292-325. Boston: Allyn & Bacon.
- Harter, S., & Pike, R.(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6), 1969-1982.
- Hodge, A. H., & Kemp, C. R.(2000). Exploring the nature of giftedness on preschool children.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4(1), 46-73.
- Hollingworth, L. S.(1942). *Children above 180 IQ Stanford-Binet: Origin and development*. New York: Word Book.
- Ladd, G. W., & Profilet, S. M.(1996). The child behavior scale: A teacher-report measure of young children's aggressive, withdrawn, and prosocial

-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2(6), 1008-1024.
- Marland, S. P. Jr.(1972). *Education of gifted and talented*(Report to the subcommittee on Education, Committee on Labor and Public Welfare, U.S.Senate).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McGhee, P. E.(1971). The role of operational thinking in children's comprehension and appreciation of humor. *Child Development*, 42, 123-138.
- Parke, B. N.(1989). *Gifted students: Who they are and what they need*. New York: Allyn and Bacon.
- Phillips, D. A.(1987). Socialization of perceived academic competence among highly competent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1308-1320.
- Piaget, T.(1955). *The language and thought of the child*. NY: Meridian Books.
- Renzulli, J. S., & Smith, L.(1971). Two approaches to identification of gifted students. *Exceptional Children*, 38, 211-214.
- Reykowski, J., & Jarymowicz, M.(1976). *Education of prosocial orientatio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Warsaw, Warszawa, Poland.
- Smutny, J. F.(1998). *The young gifted child: Potential and promise, and anthology*. NY: Hampton Press.
- Terman, L. M.(1925). *Mental and physical traits of thousand gifted children, genetic studies of genius: Vol.1*,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Winner, E.(1996). *Gifted Children: Myths and realities*. New York: Basic Books.

접 수 일 : 2009년 1월 9일

심사시작일 : 2009년 2월 4일

게재확정일 : 2009년 4월 15일